



미국의 돼지오제스키병 박멸 대책



최 은 범 역
(본회 당진지부장)

1988년 6월 미국 데모인에서 개최된 World Pork Expo(세계돼지박람회)를 성공리에 끝내고 기네스북에 도전한 2만인분의 돼지바베큐도 만드는 등 당시의 대회는 매우 화기애애하였다. 그러나 대회장 밖을 한 걸음 나가보면, 일반 양돈가들은 가뭄과 돼지오제스키병 등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악조건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오제스키병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양돈계에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오제스키병에 대한 미네소타대학 수의학부의 B.모리슨박사에 따르면,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돈생산 농장인 월드농장이 오제스키병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유명한 순수종의 생산농장이 오제스키병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양돈가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오염 원인은 다분히 사람에게 의해서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이 농장의 청정화에는 무려 10만불 가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농장주인이 말하고 있다.

파머스·하이브리드사는 현재까지는 농장이

건재하나 언제 오제스키병에 오염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단지 바이러스가 농장내에 침입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철저히 취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 돼지생산자협회(NPPC)에서는 미국의 36개주에 오제스키병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중에는 전미국의 96%의 모돈과 85%의 양돈농가가 있다. 그리고 백신을 사용하면서 이 오제스키병을 박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 농무성은 1988년중에 240만불을 36개주 중에서 20개주를 선정, 오제스키병 대책비로 보조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미국 돼지에 대하여 오제스키병 양성돈군의 조사를 하도록 했다.

백신개발 현상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4개제약회사에 의해 오제스키병 백신이 판매되고 있어 오제스키병 도태에 보다 힘센 무기로 되고 있다. 미네소타대학 수의학부에 있어서도 오제스키병의 진단 혹은

청정화에 사용하기 위한 신제품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업존사에서 오제스키병 진단키트를 개발, 1988년 여름까지 FDA(연방식품의약품국)로부터 인가를 받을 것으로 NPPC는 예측한 바 있다.

앞에서 말한 4개 회사에서 제조하는 오제스키병 백신은 각기 유전자 공학을 이용하여 생체입자(고분자)를 성립시키는 '기본단위백신'으로서 제2세대 백신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일리노이주의 양돈개업수의사인 A.다프트박사는 어느 돈군이든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농장주나 농장장도 자기 돈군의 혈액검사를 하는데 자진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약 100명의 수의사가 이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도축장에서의 검사를 강화하여 모돈과 중돈을 체크하여 출하선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네소타대학의 오제스키병에 대한 조사는 NPPC의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네소타대학 보고서에는 1974년에 0.4%였던 것이 1984년에는 육돈에 있어 10%나 양성으로 나타났다. 또 370개의 돈군이 검역중에 있다. 그리고 보다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미네소타주 중부지방에서는 대지의 반수가 오제스키병 양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백신은 현재로서는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으나, 바이러스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 돼지오제스키병에 감염되었다고 하여도 백신을 접종한 돼지는 미접종돈에 비하여 보다 바이러스 확산이 적고 백신을 접종한 돼지가 병적증상도 가볍다. 많은 격리된 돈군의 농장주는 번식돈에 대하여 계속 백신접종을 행하고 있으며, 육돈에 대하여 통상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백신접종의 문제점은 백신접종에 의한 항체인지,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인지 판정할 수 없는 점이었으나 백신생산 4개사에서 기호가 붙은 백신, 혹은 제2세대 백신으로 오제스키병에 양성이라도 백신에 의한 것인지 자연감염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게 되었다고 한다.

네브라스카주 링컨시의 노던·라브스사의 진단테스트는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이들 신제품은 양성돈(이환돈)의 도태를 쉽게 해준다. 농장에 있어 기호가 붙은 백신을 접종하여 진단테스트에 의해 백신감염인가 자연감염인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자연감염한 돼지부터 도태해 간다. 이를 연속적으로 행하므로서 중돈이나 모돈의 청정화가 가능하게 된다.

여름철에는 이 병의 발생이 좀 잠잠하므로 이때부터 겨울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또 오제스키병은 날씨와 상관하여(계절) 감염적인 면이 있다. 또 이 병 자체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나 AR(위축성 비염), 헤모필러스 폐렴 등 호흡기계의 질병과의 합병증상이 많기 때문에 오제스키병 양성돈군에서는 보다 호흡기병에 주의를 둘 필요가 있다.

NPPC에서는 오제스키병에 대하여 미국내에서 돈콜레라와 같이 완전 박멸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완수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오제스키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근래 5년사이에 2배로 증가하여 현재 해결 불가능한 문제도 개량되어질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도 이와같은 일들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내가 키우고 있는 돼지가 언제 이와같은 병에 감염될지 모르므로 항상 예방에 대비하여 소독과 관리 그리고 위생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줄로 안다. 